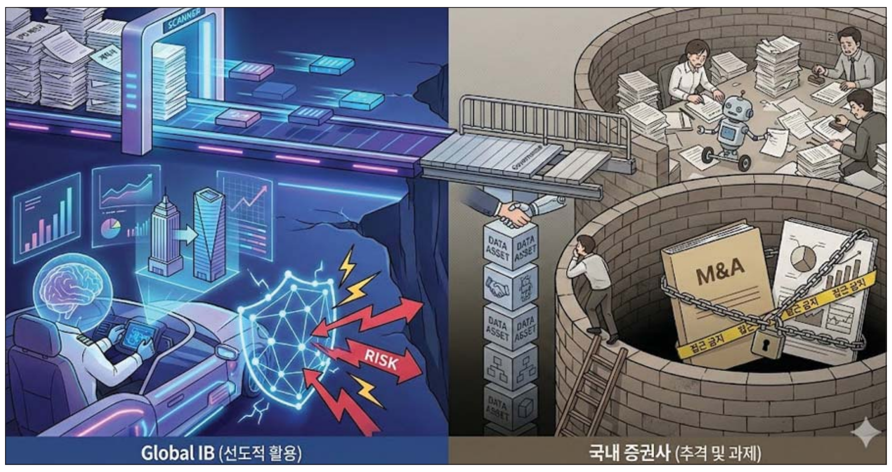
글로벌 IB, IPO·M&A 등 AI 도입 확대… 국내는 걸음마 수준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

해외 증권사, 고위험 업무도 AI 활용
국내 증권사, 신고서 작성 등 제한적
오작동 대응 등 리스크 관리 지적도



제미나이로 생성한 'AI 활용에서 드러난 글로벌 IB와 국내 증권사의 격차' 이미지.

골드만삭스는 기업공개(IPO) 제안서의 표준화된 부분을 인공지능(AI)으로 자동 작성해 주니어들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는 '인수합병(M&A) 코파일럿'을 통해 잠재 인수·매각 대상 발굴과 경영진 발언 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까지 AI 활용을 확대했다. JP모건은 계약서 분석과 실시간 거래 리스크 관리에 AI를 적용해 업무 시간을 대폭 줄였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AI을 활용해 금융투자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수합병(M&A) 등 고위험 업무 영역에서는 여전히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 **M&A 등 고위험 업무 AI 활성화 필요**

21일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금융투자 서비스와 관련한 AI 특허 출원 대부분은 기업간거래(B2B) 스타트업 등 IT 비상장사 중심이며 증권사 등 전통적 금융투자사의 비중이 미미하다.

특히 투자은행의 대형 인수금융, M&A 계약처럼 한 번의 오류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고위험 업무도 AI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김진영·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8주년을 기념해 열린 'AI와 금융투자업의 혁신' 콘퍼런스 주제 발표에서 금융투자업 내 AI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도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AI 개발·활용 원칙을 정립해 책임 소재와 오작동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AI를 실험해볼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파일럿 성공 사례는 정부 주도의 혁신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며 또한 "IT 스타트업이 금융권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는 외부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투자 방식은 AI 기술로 인해 현재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며 금융회사는 장기적 안목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단기 활용성에 얽매이기보다 최신 기술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며 AI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의 다양성은 AI가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오작동 등 리스크 대비해야**

현재 글로벌 금융투자업계는 사업 영역별로 AI를 활용하고 있다. 투자은행(IB) 부문에서는 딜 발굴부터 실사, 문서 작성까지 전 과정에 AI를 접목해 분석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신고서 작성·검증에 AI를 도입해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대형증권사와 KB 등 금융지주 역시 내부 AI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AI 도입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란 평가다.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정안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AI 도입 경쟁이 심화될수록 오작동 등 리스크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자산 디지털화, 인력 및 하드웨어 보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활용 전과정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초개인화 자산관리 등 서비스 범위 확장

〉〉1면 '투자상담·상품설계…'서 계속

PB와 리테일 자산관리에도 AI가 적극 쓰인다. 투자자의 소득·성향·목표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글로벌 리포트를 실시간 요약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산됐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 고객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며, 초개인화 자산관리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적용한 'AI 어시스턴트 플랫폼'과 'AI 마켓 어시스턴트'를 도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에 AI 기반 '영업 코칭 어시스턴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AI로 내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KB증권은 생성형 AI의 최신 트렌드인 '에이전틱 AI' 구현에도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사적인 AI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 'AI솔루션부'를 신설했으며, 현재는 종목별 위험평가, 증권신고서 작성 및 감수, 리서치 리포트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다.

마케팅에서도 AI가 활발히 활용된다. 생성 AI 영상·음성을 활용한 광고와 캠페인, 뮤직비디오·숏폼 드라마 형식의 리서치 콘텐츠 제작이 대표적이다.

/허정윤 기자

중기중앙회, 내년 中企 경영환경 전망 조사

"내년 '자강불식' 한 해 되기를"

〈自强不息〉

올해 경영환경 '고군분투' 꼽아
내년 심기일전·사석위호 등 답변

중소기업계가 내년 사자성어로 '자강불식(自强不息)'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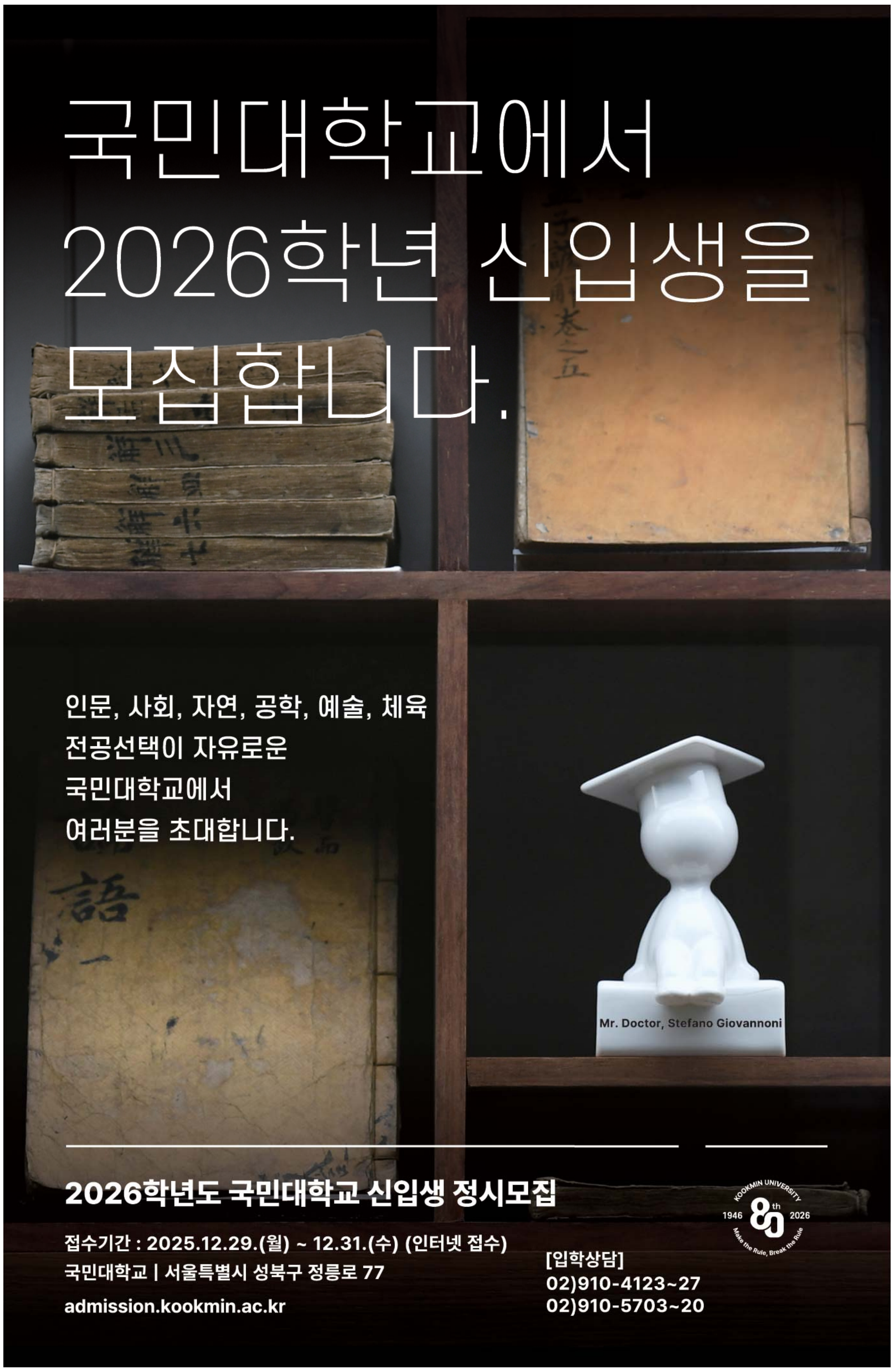
'대내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K-중소기업의 의지를 담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사자성어 조사' 결과 30.2%가 '자강불식'을 선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강불식은 '스스로 강하게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자강불식을 뽑은 이유에 대해 서울 소재 A업체는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위기 속에서 당분간 어렵겠지만 건설 등 몇몇 산업 분야는 러우전쟁이 종결되면 산업 활력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작게나마 열릴 기회를 대비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강불식 이외에 '심기일전'(心機一轉·23.4%), '사석위호'(射石爲虎·21.9%), '사중구활'(死中求活·14.4%)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올해 경영환경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5%가 '적은 인원이나 약한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간다'는 뜻의 '고군분투(孤軍奮鬪)'를 뽑았다.

/김승호 기자 bada@